

금감원장, 임원회의(5.16.) 당부사항

(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)

-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,
 -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하여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·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,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
-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,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
 -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「(가칭)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」을 설치하여
 -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·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
 - 신속히 암행·일제점검에 착수하여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,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음
- 아울러, 금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한 아래 사항들을 검토하여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
 - 금감원의 온·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·분석기능 강화(예: AI기반 정보탐지시스템) 및 인력 확충
 -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
 - 금융위·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

담당부서 : 자산운용감독국장 최강석 (☎ 02-3145-6700)
자산운용검사국장 김형순 (☎ 02-3145-7690)
기획조사국장 고영집 (☎ 02-3145-5550)
민생금융국장 이명규 (☎ 02-3145-8270)

팀장 송현철 (☎ 02-3145-6752)
팀장 이현덕 (☎ 02-3145-7620)
팀장 조성우 (☎ 02-3145-5582)
팀장 김경환 (☎ 02-3145-8285)